

## 논평 : 濟州島 巫俗과 神話

이 수 자\*

장주근선생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제주도 무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조사·채록·연구하시어 오늘날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무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노고가 크신 만큼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업적이 집대성되신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들의 연구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논평이란 본 내용에 대한 찬동보다는 이의 제기를, 그리고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저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입장을 달리하는 점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도 큰굿속에서 불리우는 신화인 이공본풀이 및 세경본풀이의 형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공본풀이의 형성은 월인석보중의 안락국태자경에 근원을 두시고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인 세경본풀이는 중국의 강창문학과 관련지으셔서 이것이 중국의 양산백전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즉 이공본풀이 및 세경본풀이 신화는 이들을 수용하여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의 큰굿이 만들어졌던 것과 동시에 형성되었던 신화들이고, 이것이 오히려 후대에 불경이나 소설을 이루는 모태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위논문에서 제주도 큰굿에서 불리우는 신화들을 중시하고 이들 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큰굿의 구조를 재구해 본 결과, 제주도의 큰굿은 우리 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행해왔다는 큰굿의 본래적 모습을

\* 이화여대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① 우선 그 구성이 열두 제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점은 큰굿이 열두거리(제주도에서는 열두석)였다는 구비전승되어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 ② 열두개 개별 제차의 구조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지인 창생·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食의 차원(농경 기원 및 풍농)·주거 공간의 차원·혈연적 집단의 차원」, ③ 큰굿속의 신화에는 전세계에 보편하는 신화인 천지창조(생) 신화·인간 탄생 및 죽음에 관한 신화·농경기원 신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④ 또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생명꽃 및 서천꽃밭이라는 motif를 공유하고 있음으로서 이들의 형성이 같은 집단에 의해 동일 시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생명 체계를 식물 체계에 비유해서 생각했었던 시기, 곧 농경 문화의 비교적 이른시기 및 뱀을 신으로 관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형성시기가 매우 이른 시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⑥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본토에서 전체적 모습 혹은 변모된 모습으로 그 흔적이 모두 남아 있고, ⑦ 말리노프스키는 神話가 문화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주도 큰굿속에 나오는 신들 중 생불할당은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바 아이를 잉태 양육시키는 삼신할머니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외에도 이런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들 신화들은 곧 우리민족의 민족신앙을 형성시킨 모태적 역할을 했던 신화들로 볼 수 있으며, ⑧ 신화는 민담·전설·소설 등의 소재적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인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본토에서 전설이나 민담 그리고 소설 등으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결과에 따라 저는 제주도의 큰굿 및 여기에서 불리우는 신화들의 위상이 앞서와 같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곧 섬지방에는 古文化가 잔존한다는 일반적 학설과도 일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해서 된 것이라고 하면, 이공본풀이 신화 및 나아가서는 이것과 생명꽃화소를 함께 공유하는 천지창생 신화, 그리고 제주도 큰굿의 형성시기 역시 아무리 빨리 잡아도 조선(이조) 초기가 될텐데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농경기원신화는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곧 나타날 수 있는 신화인데, 우리나라의 농경기원신화인 세경본풀이가 중국의 강창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조형으로 삼아 이루어 졌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아닌지요?

이공본풀이 및 세경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 및 양산백전 등을 수용해서 형성된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완해 주는 논리는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 내용에서도 보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들이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단조롭고 가난하게 된 것은 '종교체계에 어긋난 것은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당곳이나 큰곳은 다 같이 신성한 제의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논리는 큰곳속의 신화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곧 제주도 큰곳속의 일반본풀이 역시 아무 것이나 쉽게 함부로 수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신화 역시 나름대로 고정된 그런 불변체계 속에서 구비 계승되어 온 것이라 본다면 이들 신화는 원래 있었던 것이지 이후의 어느 시기에 불경의 영향 또는 강창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제주도 무속은 매우 고풍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간 학계에서는 이것을 주목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큰곳속의 일반본풀이들이 불교 수용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시고 이들 신화를 巫佛習合文藝라 하시고 있습니다. 천지창생신화 및 농경기원신화 등이 불교 수용 이후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문제가 되고, 또 선생님께서 佛敎의 영향으로 예증하신바 여러가지 사실은 이것을 반드시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佛敎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① 우선 제주도 심방들 사이에서는 신도법이 불도법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불도법을 선생님처럼 佛敎로 보아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구전되어온 바 '불도'라 할때의 '불'은 반드시 '붓다'를 의미하는 '佛'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며, 또 巫法이 佛敎보다 앞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巫法인 신도법이 佛敎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상 모순

되기 때문입니다. 구전되어온 바의 사실을 증시한다면, 신도법에 앞서서는 현재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불도법’이란 종교형태가 따로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② 큰굿속의 제의언어에 나오는 바는 産神을 생불할망이라 하고 이 神을 맞이하여 행하는 제차를 불도맞이 제차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불을 전부 佛敎의 佛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면 이들은 佛敎의 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굿속의 제의언어에 보면 産神은 [생<sup>●</sup>불할망]이라 하고 이 神을 맞는 제차는 [불<sup>●</sup>도맞이], 아이를 잉태시키는 뜻은 [생<sup>●</sup>불꽃], 아이의 잉태를 기원하는 제의는 [원<sup>●</sup>불수룩]이라 하는데 이것은 [불<sup>●</sup>당]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또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제의는 [시방광서<sup>●</sup>불]이라 하는 등 인간 생명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들은 古代에 있어 인간생명을 <불>로 말했던 흔적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민족이 인간생명을 불로 말했던 것은 큰굿속의 제의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체를 지칭했던 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즉 남성의 성기 중 고환을 지칭하는 말을 우리는 불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환을 생명의 알로 보았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큰굿속의 앞서와 같은 말들에 나오는 <불>은 반드시 佛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보면 제주도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의 형성을 반드시 불교수용 형성이후와 관련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또 선생님의 입장을 전혀 도의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실제신화속에는 여성신들의 출생담이 절 및 중과 관련된 기자정성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巫祖神의 본풀이인 초공본풀이에는 巫祖神이 중의 아들로 되어 있으며, 그들은 여러가지 巫法을 아버지인 중으로부터 전수받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과 관련된 사실을 전부 佛敎와 관련지어 이해한다면, 이들 신화들이 보여 주는 사실은 큰 굿속의 신화들이 佛敎수용 이후에나 되어진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당’이나 ‘중’을 반드시 佛敎와 관

런지어 생각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이나 불당 끈 짚은 佛敎수용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유한 신앙체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중’이란 말은 원래 무격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기존학설이 있으며, 또 현존하는 짚에는 무속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잔존해 있고, 또 이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화들은 전부 여성 신들의 출생담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화 시대에는 남성신보다 여성신들이 보다 증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원래 여성신들을 보다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굿 전체 내용을 보면 초감계 중 배포도업칭에는 하늘의 질서가 마련된 후 인간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불도선생 노자님이 ○○○에 가서 풍부채(풍채)를 내어다가 불당을 설연하고 인간의 생불날기를 기원하고 명과 복록을 빌기 위해 불도법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꽃 전체를 보면, 불당 및 불도법은 이들 신화가 형성될 당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도법이 불도법에서 나왔다는 구비 전승의 내용도 근거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큰굿속의 제의언어에 나오는 사실들을 이상과 같이 이해하면 제주도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불교형성 이후에 형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료에 나오는 앞서와 같은 사실들은 오히려 우리의 古文化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라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